

# 어촌어항어장 소식

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12 (13층) T. (02) 3673-2858-9 F. (02) 3673-2857 www.fipa.or.kr 발행/편집인 裴平岩·인쇄인 金在克 ISSN 1227-7053 등록일 : 1988년 2월 19일

## 올해 어촌어항에 2,917억원 투자

기존 투자항 조기완공 · 이용자 편의 위주 정비  
도시어촌교류 및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도 역점



업의 집중투자, 관광 모델사업의 본격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.

올해 3월말에는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, 그 결과를 신규국가어항지정과 어촌개발사업, 어촌관광개발사업, 신규사업인 어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사업, 낙후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.

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어항개발은 계속 공사중인 선진포항 등 13개항과 신

**올** 해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투자 예산은 지난해 보다 282억원 증액된 2,91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중 국가어항건설에는 1,404억원이, 지방어항건설에는 509억원이 투입된다.

또 다기능어항개발 등 어촌어항관광 개발 사업에는 지난해 보다 28억원이 증액된 637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. 또 어촌종합개발사업에도 310억원이 투입된다.

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존 투자항의 조기

완공의 목표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 투자하고 활용도가 높은 어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 위주의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. 신규어항 지정은 어촌·어항법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진 국가어항지정 기준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.

이와 함께 어선의 감축, 고령화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FTA 협상 등에 의해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아래 계속사

규 착수되는 구시포항을 포함하여 14개항에 대해서 집중투자하고, 어유정, 오산항 등 17개항에 대해서는 정비확장, 보수보강 위주로 유지보수를 실시키로 했다. 그리고 웅진군 선진포항, 흥성군 남당항 등 2개항과 함께 어촌어항관광 개발사업의 하나인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울산시 정자항, 강릉시 안목항이 올해 완공된다.

또 어촌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체험마을 지원, 홍보사업 등도 펼치게 된다.